

독일 도이체스박물관

희귀사물 6만여점 · 도서 85만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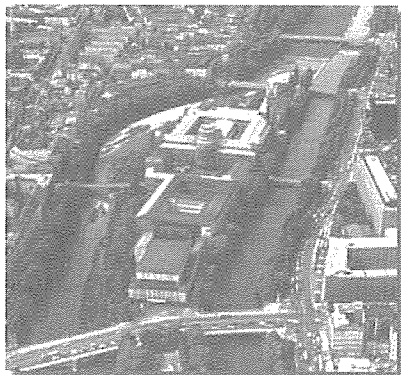
독일 뮌헨의 도이체스박물관(Deutsches Museum)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교육을 목적으로 1925년에 개관한 과학기술 박물관이다. 이 곳은 “과학기술 걸작으로서의 독일 박물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사시대의 생활도구에서부터 오늘날의 악기까지 전 세계 과학기술의 발달 및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약 6만여점의 희귀 과학기술 사물과 85만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백30만명의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과학관이다. 약 3백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도이체스박물관은 전시관의 동선 길이만 해도 약 20km에 이르는 대규모 과학관이며, 현재 뮌헨의 본관 이외에도 항공우주 분야의 과학기술사물을 전시 보관하고 있는 Schleißheim격납고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학기술사물이 전시되어 있는 본(Bonn)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이체스박물관의 전시관은 항공, 우주비행, 천문, 농업, 교량건설, 수레와 자전거, 도자기, 화학, 시계, 컴퓨터, 에너지 기술, 환경, 지구, 유리, 명예의 전당, 기계의 구성과 도구, 수학, 광업, 금속, 마이크로전자공학, 석유, 자동차와 오토바이, 음악, 물리, 동력기계, 인쇄, 철도, 과학기구, 장난감, 통신, 의류기술, 무게와 수치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전시품을 제대로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전시관의 대표적인 전시품만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명작(Masterpiece)코너도 있다. 한편, 1만5천년 전 고대인들의 석기시대 벽화가 남아있는 스페인 북쪽의 알타미라 동굴관(Altamira Cave)이 있으나, 현재는 벽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항공관 전시면적 8천㎡

50대 이상의 실물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는 항공관은 전시면적이 8천㎡에 달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시품의 규모가 세계 최대이다. 또한, 우주비행관에는 30여대의 로켓과 함께 유인우주선의 달 착륙모습, 각종 인공위성, 행성의 탐사 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



도이체스박물관의 전경

어 있으며, 2백여점의 독창적인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천문관은 우주의 구조, 별의 본질과 진화, 태양계와 태양에너지, 취미생활로서의 천문학 등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크게 파손되었다가 1962년에 재개관한 농업관에서는 낙농, 정제, 설탕제조, 양조, 계분산업 등 20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1998년에 개관한 교량건설관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교량과 교량건설의 역학구조에 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수레와 자전거 전시관에서는 19세기의 수레를 비롯하여 외발자전거, 세발수레, 마차 등을 볼 수 있고, 도자기관에서는 시대별 다양한 도자기와 도자기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전시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유리의 제조와 사용 및 색다른 유리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유리관, 고대 이집트의 물시계로부터 오늘날의 원자력시계까지 각양각색의 시계들을 둘러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물리, 화학, 수학 등의 분야는 관람객이 직접 실험에 참여해 봄으로써 물리·화학의 원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모형을 조작하고 도형

1925년에 개관한 독일 뮌헨의 도이체스박물관은 현재 6만여점의 희귀 과학기술사물과 85만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1백30여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과학관이다. 이 박물관은 짧은 시간내에 대표적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명작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을 그려보면서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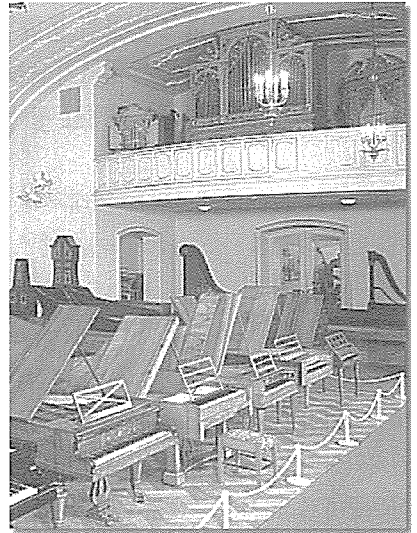
전시 동선의 길이가 9백m에 달하는 광업관은 도이체스박물관의 가장 큰 전시실 중의 하나이며 광산의 갱 속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현장처럼 재현하였고, 유럽의 독창적인 기계와 장치들도 전시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관에서는 원유의 탐사와 채취, 정유와 운반, 저장과 분배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각종 엔진을 전시하고 있는 동력기계관에서는 물레방아와 풍차도 볼 수가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관은 옛날 차와 최신 차들이

두개의 전시관에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고, 18종류의 실물열차가 전시되어 있는 철도관에서는 증기기관차, 디젤열차, 자기부상열차 등을 볼 수 있다. 기계장비관에서는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작동시범도 보여주고 있어서 관람객들이 기계의 작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장난감관에서는 아이들이 나무 블럭 등을 이용해 건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볼 수 있다.

주간 단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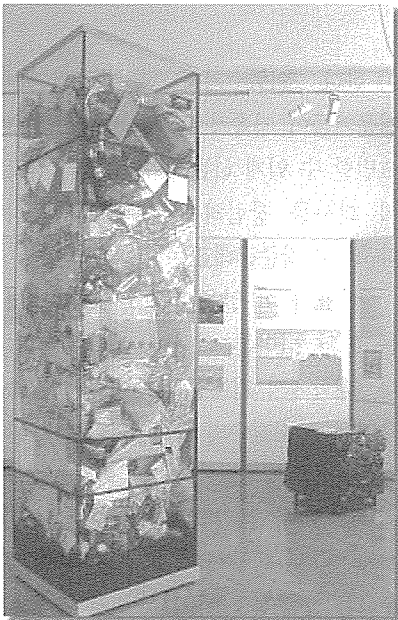
이밖에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관, 의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의류기술관, 모형을 통해 터널공사의 원리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터널건설관 그리고 키보드실, 현악기실, 목관악기실, 동관악기실, 전자악기실 등을 갖춘 음악관이 있는데, 특히 음악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학생들이 매년 정기 연주회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 박물관이 주는 딱딱한 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이체스박물관에는 상기한 전시관 이외에도 박물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별도의 기관(Kerschensteiner Kolleg)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교사와 학생, 과학자, 기술자, 박물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



음악관의 내부 모습

주일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Forschungsinstitut)에서는 영국 과학박물관 등 유럽 내의 16개 과학관과 공동으로 'Chemistry for life'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반인들의 화학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고 화학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학의 학기 중에는 매주 다양한 주제의 과학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서 과학의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⑤7



환경관의 전시품

李 貞 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